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수 연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옥의 조형적 특성을 이용한
직물 작품 연구

201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예학과
최수영

한옥의 조형적 특성을 이용한
직물작품 연구

김 수 연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 예 학 과

최 수 영

인 준 서

최수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9년 5월

심사위원장 이재선 (인)

심사위원 정병진 (인)

심사위원 김수연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현대사회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국제화되고, 세계의 트렌드는 실시간으로 바뀌며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 간의 다양한 정보는 물론, 해외문화 콘텐츠 또한 다량 유입되는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의 전통문화 콘텐츠는 실시간으로 바뀌는 트렌드에 합류하지 못하고 ‘옛날 문화’ 짬으로 여겨지곤 한다.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의 문화적인 정체성과 독창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화를 그대로 계승하고 보존하는 것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 전통문화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인들의 가치관에 적합한 전통문화의 다양한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한국의 자연환경 및 생활방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전통문화인 ‘한옥’의 조형적 특성과 상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 연구를 통해 한국 전통문화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확립하고, 우리 문화의 현대적 발전 가능성을 세계 속에 알리고자 하였다.

연구 진행은 주제에 대한 자료 조사와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한국의 생활환경과 한옥의 형성 등에 관한 조사를 통해 한옥에 대한 문헌 조사와 이미지 수집을 통해 전체적인 작품디자인 주제와 컨셉을 확정 지었으며, 한옥의 조형적 특성을 공간의 연속성, 형태의 포용성, 색채와 질감의 소박성의 3가지로 분류하고, 순환과 조화라는 한옥의 상징성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한옥의 조형적 특성과 상징성에서 비롯된 심상을 바탕으로 수집한 자료로부터 모티브를 추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옥의 조형적 특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식물조직을 계획하고 그에 따라 직물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자는 한옥의 조형적 특성과 상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직물

작품 연구를 통해 한국 전통문화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확립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우리 문화의 현대적 발전 가능성을 세계 속에 알리고자 하였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2
II. 이론적 배경	4
1. 한옥의 일반적 고찰	4
1) 한국인의 생활환경	4
2) 한옥의 형성	7
2. 한옥의 조형적 특성	8
1) 공간의 연속성	9
2) 형태의 포용성	11
3) 색채와 질감의 소박성	13
3. 한옥의 상징성	16
III. 작품 제작 및 분석	19
1. 작품 제작 의도	19
2. 작품 제작	20
3. 작품 분석	27

IV. 결론 및 제언 54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한옥의 조형적 특성 분석	14
<표 2> 작품 제작 과정	22
<표 3> 작품 제작 색상 분석	23
<표 4> 작품 제작 소재 분석	24
<표 5> 식물조직 분석	26
<표 6> 작품 1 ‘Permeated’의 분석	28
<표 7> 작품 2 ‘Cross the door’의 분석	31
<표 8> 작품 3 ‘Permeated_HG’의 분석	34
<표 9> 작품 4 ‘Windows_Y’의 분석	37
<표 10> 작품 5 ‘Windows_R’의 분석	40
<표 11> 작품 6 ‘Windows_B’의 분석	43
<표 12> 작품 7 ‘Connection’의 분석	46
<표 13> 작품 8 ‘Kiwa_1’의 분석	49
<표 14> 작품 9 ‘Kiwa_2’의 분석	52

작 품 목 차

<작품 1> 'Permeated', 620×3100mm / Silk, Rayon	27
<작품 2> 'Cross the door', 750×2350mm / Hanji, Silk, Rayon	30
<작품 3> 'Permeated_HG', 600×600mm / Hanji, Silk, Rayon	33
<작품 4> 'Windoors_Y', 650×900mm / Hanji, Silk, Rayon	36
<작품 5> 'Windoors_R', 750×1250mm / Hanji, Silk, Rayon	38
<작품 6> 'Windoors_B', 750×1250mm / Hanji, Silk, Rayon	42
<작품 7> 'Connection', 750×1250mm / Hanji, Silk, Rayon	45
<작품 8> 'Kiwa_1', 450×650mm / Hanji, Silk, Rayon	48
<작품 9> 'Kiwa_2', 450×650mm / Hanji, Silk, Rayon	51

I.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현대사회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국가 간의 경계가 없이 국제화되고, 세계의 트렌드는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으며, 해외 문화 콘텐츠 또한 다량 유입되고 공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문화 콘텐츠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한국사회에서도 서구의 문화가 보편적인 문화의 양식으로 인식되고, 우리의 한국 전통문화는 트렌드에 뒤처지는, '나이 많은 사람들의 전유물' 째음으로 여겨지곤 한다.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의 문화적인 정체성과 독창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화를 그대로 계승하고 보존하는 것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 전통문화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인들의 가치관에 적합한 전통문화의 다양한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한국적 정서와 정체성을 갖는 직물작품을 통해 한국만이 인정하는 '우리의 것'이 아닌, 전세계의 외국인들까지 손쉽게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야 할 때이다.

집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일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의 공동생활이 이루어지는 휴식공간이다. 이러한 주거공간인 집은 인간생활을 보호하고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공간을 넘어서 문화적 산물로 한 나라와 민족, 사회와 시대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다. 따라서 우리나라 문화에서 한국인의 생활배경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 한옥이라는 배경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본 연구자는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한국적 정서를 한옥을 통해 재해석하였다. 우리 선조들의 삶을 수용했던 주거공간으로서 한국의 자연환경 및 생활방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한옥의 조형적 특성과 미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 연구를 통해 한국 전통문화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확립하고, 우리 문화의 현대적 발전 가능성을 세계 속에 알리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전통문화유산 중 조선시대(朝鮮時代, 1392~1910) 주거 건축물 한옥의 조형적 특성과 상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작품을 연구하고자 한다. 한옥의 용도적 분류에 있어서는 주거 건축, 유교 건축, 불교 건축, 궁궐 건축 및 관아 건축 중 주거 건축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주거건축 중 재료에 따른 분류에서는 기와집, 초가집, 너와집, 굴피집, 귀틀집, 토담집, 움집 중 기와집으로 한정한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먼저 국내 외 논문 및 잡지, 서적, 법령,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옥의 형성 기반이 되는 한국인들의 생활문화와 한옥의 형성배경을 조사한다. 한옥에서 나타나는 조형적 특성을 공간의 연속성, 형태의 포용성, 색채와 질감의 소박성의 3요소로 분류한다.

이를 바탕으로 비움과 연결에서 오는 ‘순환’, 절제와 포용에서 오는 ‘조화’라는 한옥의 상징성을 도출하고 이를 심상적 바탕으로 작품제작 아이디어를 진행한다. 직물 작품 디자인에 있어서는 한옥의 조형적 특성에서 모티브를 추출하고 재해석하여 작품 아이디어를 드로잉한다.

한옥의 조형적 특성을 모티브로 한 작품 제작 아이디어 드로잉을 바탕으

로 직물의 조직을 설계하고, 한옥의 조형적 특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소재연구를 통해 한지사, 실크사, 레이온사 등의 소재 3가지로 한정하고 합사하여 사용한다. 설계한 직물조직을 바탕으로, 평직, 능직 등 기본 기법과 한옥의 조형적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변형기법의 직물조직을 통해 직물을 제작한다.

본 연구의 작품 제작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한국인의 생활문화를 이해하고 한옥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진행함으로써 한옥이 형성된 배경과 한옥의 조형적 특성을 파악한다. 한옥의 조형적 특성을 공간의 연속성, 형태의 포용성, 색채와 질감의 소박성의 3요소로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순환과 조화라는 한옥의 상징성을 도출한다.

둘째, 한옥의 조형적 특성과 상징성에서 비롯된 심상을 바탕으로 수집한 자료로부터 모티브를 추출한다. 이러한 모티브를 바탕으로 현대적인 직물 작품으로 시각화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드로잉하고, 이에 따른 직물조직을 설계한다.

셋째, 설계한 직물조직을 바탕으로, 평직, 능직 등의 기본 조직과 한옥의 조형적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변형 직물조직을 개발하여 직물을 제작한다. 재료의 사용에 있어서도 한옥의 특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소재연구를 통해, 직물 제작을 위한 실을 한지사, 실크사, 레이온사의 3종류로 한정하고 합사하여 사용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한옥의 일반적 고찰

1) 한국인의 생활환경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진 한국인은 그들만의 사상, 행동, 생활습관을 오랜 시일에 걸쳐 형성하며 계승, 발전시켜 왔으며 그것들이 한국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전통(傳統)이란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지난 시대에 이미 이루어져 계통을 이루며 전하여 내려오는 사상·관습·행동 따위의 양식”¹⁾이며, 작품연구에 있어 전통이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창조되고 계승되어 내려온 형식 그 자체도 있지만, 그것을 유지하고 지탱해 온 이데올로기를 가리킨다. 이것은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그 사회에 속한 구성원들에게 정서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고유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사계절이 뚜렷한 자연환경에서 생활한 우리 민족은 인공적인 꾸밈보다 자연의 순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적응하고자 하는 순응형 감성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자연 친화적인 심성(心性)이 생활문화 전반에 나타나 있다.

이러한 자연성을 지향하는 미적 가치는 한국인이 예로부터 지녀온 경천사상(敬天思想)²⁾과 자연숭배사상 등에서 그 근원을 찾아볼 수 있는데, 자연에 대한 친화적 정서는 자연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자연의 혜택과 영향력 안에서 자연의 순리에 적응하는 자연관이 확립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인위적인 기교를 부리지 않고 자연스러운 것을 존중하는 한국의 미의식은 오늘날까지 한국 문화의 대표적 특질로 지속성을 갖고 있다.³⁾

1) “전통”,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2) “경천사상: 하늘을 공경하는 종교적 사상”,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인간과 자연이 분리된 것이 아닌, 하나의 합일체라고 여긴 한국 자연주의적 가치관이 한국의 문화와 예술에 광범위하면서도 포괄적으로 그 근원을 이루고 있음을 볼 때, 한국의 도가사상은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는 물론 디자인에 있어서도 한국의 문화 정체성을 대변할 수 있는 사상 및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도교에 사상적 근원을 두고 있는 한국의 도가사상은 실존하는 생활 철학으로서 한국인의 인(仁)의 특성과 사상적 동질성을 지니며,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는 무위자연의 상태, 즉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이상적인 것으로 제시하여 왔다.⁴⁾ 도가사상은 특히 한국의 문화·예술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한국의 전통건축이나 공예 등에서 나타나 있는 담백함이나, 자연과의 소통을 통한 일체감은 바로 한국의 무위사상에서 온 친자연성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자연환경은 예로부터 ‘금수강산(錦繡江山)’이라 표현될 정도로 강물이 맑고 아름다운 산이 많으며, 사계절이 분명할 뿐 아니라 날씨도 청명하다. 이같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도가사상의 영향으로 한국인들은 자연에 순응하는 자연주의적 생활철학을 갖게 되었으며, 이는 한국의 주생활과 건축 문화에도 영향을 끼쳤다. 한국인들은 노년기 지형의 구릉지가 많고 완만한 지형적 특성의 자연환경 속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마을 뒷산의 곡선을 닮은 지붕이나 나무의 곡선을 그대로 살린 기둥과 문틀 등 건축뿐 아니라, 도자기의 형태와 문양 등 공예품에도 완만한 곡선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러한 것에는 자연을 압도하기보다는 함께 어우러지게 하려는 선조들의 겸허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 한옥을 짓는 터전 또한 자연과 어우러지기 위해 배산임수의 지형으로, 북쪽에서 오는 찬 바람을 막아 주고, 경작하기 쉬운 남쪽의 땅을 선택하였다. 자연경관을 중요시했던 우리 민족의 주거 생

3) 이규락, 「도가적 미의식을 바탕으로 한 한국의 문화적 디자인 콘텐츠 개발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p.27

4) 이규락, 「도가적 미의식을 바탕으로 한 한국의 문화적 디자인 콘텐츠 개발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p.21

활은 모든 것이 이처럼 자연적으로 이루어졌다. 집의 형태는 그 지역의 기후조건이나 자연환경 등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반도형의 구조로써 대륙이면서도 해양적인 이중적 성격의 주택 유형이 발달하여, 주택구조에 온돌과 마루라는 대조적인 바닥구조가 형성되었다. 우리 선조들은 찬 바람이 불고 눈이 많이 내리는, 추운 겨울을 지내기 위해 방바닥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온돌이라는 난방시설을 사용하였고, 덥고 비가 자주 내리는 습한 여름을 지내기 위해서 바닥이 시원해지는 마루를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당연하게도 추운 북쪽 지방에서는 따뜻한 온돌이 발달하였고, 더운 남쪽 지방에서는 시원한 마루가 발달되었다.

우리나라 전통건축물 한옥에 사용된 재료는 목재(木材), 석재(石材), 지재(紙材), 토재(土材) 등으로, 이들은 모두 주위의 자연환경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을 가공하여 사용했다. 골격과 지붕 또한 가공을 많이 하지 않고 자연재료인 나무의 원형에 가깝게 목재의 질감을 그대로 사용하는 굴피집, 너와집 등의 자연주의적 기법이 발달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흙을 건축 재료로 자주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흙이라는 소재 자체가 생태적인 데다가 냉기·열기 차단부터 습도 조절, 통풍까지 뛰어날뿐더러 주변 자연에서 재료를 구하기도 쉬웠기 때문이다.

또한 목조주택을 고집한 것은 석재나 벽돌보다 견고성이나 보존성은 약할 수 있어도 자연 친화적이며, 주어진 자연환경의 순리에 적응하려는 선조들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전통주택을 통해 드러나는 한국의 전통적 자연관은 자연을 도전의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순응하고 배우며 인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⁵⁾.

5) 윤영일, 「전통한옥의 공간구성에 관한 특성과 현대한옥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동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11

2) 한옥의 형성

한옥(韓屋)이란 말 그대로 한국의 가옥으로, 우리나라에서 우리 고유의 기술과 양식으로 지은 건축을 의미한다. 좁은 범위로는 ‘주거용 살림집’이지만, 우리말에서 집이란 주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 일반을 총칭하므로 넓은 범위로는 ‘한국 전통건축 전체’를 포함한다. 한옥은 지역과 시대에 따른 형태적 차이가 명확하고, 그 원형을 쫓는 일도 간단하지 않다. 세대를 걸쳐 계속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크고 작은 변화가 끊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랜 역사 속에서 어디부터 한민족의 특성이 발현되는 시기로 볼 것인가도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옥’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⁶⁾

한옥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지금까지 발견된 자료 가운데서는 융희 2년(1908)의 「가사에 의한 조복 문서」(家舍에 關한 照覆文書)에서 처음 그 용례가 확인⁷⁾된다. 19세기 후반 개항 이후 서양식 건축양식이 들어오면서, 정동길에 남아있던 기와집을 가리키는 말로 한옥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 1975년경 삼성출판사의 「삼성 새 우리말 큰 사전」에 한옥은 “우리나라 고유의 양식으로 지은 집을 양식 건물에 상대하여 부르는 말”로 정의되었다.

법에서 정의한 한옥을 살펴보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법률 제12739호, 2015.6.4. 시행)」에서는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 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 건축물을 말한다. 그리고 ‘한옥 건축양식’이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을 말한다. 여러 정의에서 제시된 한옥 여부 판단의 기준은 ‘한식 지붕(기와)’

6) “한옥의 정의”, 서울한옥포탈, <<http://hanok.seoul.go.kr/front/kor/info/infoHanok.do?tab=1>>, (접속일: 2019.05.11.)

7) 전봉희, 「한옥의 브랜드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적 연구」, 서울대학교 국학연구 제8집, 2006, p.278

과 ‘목구조’이고, ‘전통미’와 ‘자연재료’가 추가로 제시된다.⁸⁾

자연경관을 중요시했던 우리 민족의 주거 형태는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져 이처럼 조화와 균형 속에 배치되었다. 집의 형태는 기후 조건과 자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노년기의 산악으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의 지형적 특성은 우선 택지를 선정함에 있어 자연적 조건을 따라 뒤쪽은 산으로 둘러싸이고 앞쪽엔 강을 끼도록 하는 배산임수(背山臨水)⁹⁾의 지형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지형에 대한 관심은 풍수 사상을 뿌리내리게 하였고, 택지의 선택이 인간의 길흉화복(吉凶禍福)¹⁰⁾을 지배한다는 믿음을 갖게 하였다. 또한 노년기의 구릉들이 이루는 산세의 완만한 곡선을 따라 주택이 지닌 지붕의 선은 인위적인 직선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표현되었고, 주택의 구조는 대지의 형태를 따라 단층의 안락한 수평적 구성을 보여준다. 주택의 규모나 배치에 있어서도 자연을 압도하기보다는 지형에 순응하고 경관에 조화되도록 이루어져 있어, 멀리서 보이는 전통한옥마을의 형태는 처음부터 집들이 그곳에 그렇게 있었던 것처럼 그 형태와 규모가 자연적 배경에 꼭 알맞게 어우러져 있다.¹¹⁾

2. 한옥의 조형적 특성

한옥은 인공적인 기교나 장식을 피하고 우리 주위의 자연 재료를 그대로 사용하여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기둥을 세울 때도 나무의 자연적인

8) 전봉희·이강민, 「한옥정책브리프02 : 한옥의 정의와 의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1, p.2

9) “배산임수: 지세(地勢)가 뒤로는 산을 등지고 앞으로는 물에 면하여 있음.”,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10) “길흉화복: 길흉과 화복을 아울러 이르는 말.”,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11) 윤영일, 「전통한옥의 공간구성에 관한 특성과 현대한옥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동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10 요약인용

형태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였고 한옥의 전체적인 선들은 기하학적인 직선이 아니라 매우 자유스러운 선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한옥은 개방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서양의 건축이 외부나 내부 모두 폐쇄적인데 비해 한옥은 거주자의 문의 개폐에 의해 가변적인 공간구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동체적인 삶의 공간을 형성하게 한다.¹²⁾

본 연구에서는 한옥의 조형적 특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한옥의 조형적 특성을 공간적 특성, 형태적 특성, 재료적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1) 공간(空間)의 연속성

한국 건축을 대표하는 조선시대의 한옥은 각각의 공간이 채와 채로 건립되고 채 안에서 다시 여러 개의 간(間)으로 분화되는 특성을 갖는다. 주거 공간에 있어서 사랑채, 안채, 행랑채, 별채 등 여러 채가 모여 하나의 커다란 공간을 이루고 다시 사랑채는 사랑방, 침방, 대청 등으로 또, 안채는 안방, 윗방, 건넌방 등으로 간의 분화를 이루며 인간의 내부 공간으로의 이동에 따라 심화된다.¹³⁾

이러한 채의 특징은 한옥의 구성단위로써 각 기능에 따른 독립적인 건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각 방은 외부와 접하는 면적이 많다. 각 채의 여러 방은 두 면을 외부와 접하는 것이 보통이며 세 면이 외부와 접하는 수도 있다. 방문을 열면 바로 외부와 접하기 때문에 방에서 외부로 직접 나갈 수 있다는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다.¹⁴⁾

또한 한옥은 자연환경에 따라 가옥의 외부 형태와 내부 구조가 달라지듯이 각 채들은 마당을 중심으로 ‘ㄱ’자, ‘ㄷ’자, ‘ㄹ’자 등으로 배열된다. 이

12) 윤지혜·오연옥, 「한옥의 이미지를 응용한 의상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009 p.361

13) 윤영일, 「전통한옥의 공간구성에 관한 특성과 현대한옥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동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29에서 재인용

14) 서한울, 「한옥의 친자연성을 중심으로 인간에게 이로운 요소를 적용한 공동주택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46에서 재인용

때문에 다양한 사각형의 구조를 가진 중정형 마당을 형성하며, 각 공간이 마당을 향해 열려있어 이 마당들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자연을 그대로 담아낸다. 또한 다양한 구조와 상관없이 모든 한옥에는 바람길이 통하게 되어 있어, 방 안에서 어떤 문을 열어도 바깥과 통해 있다. 한옥의 공간은 이렇게 외부와의 단절을 최소화하여 바깥을 항상 손쉽게 접할 수 있어, 내부공간의 시각적, 심리적 확장 공간으로서의 개방성을 가짐과 동시에 생활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모든 창문이 개방되어 건너편 모습이 일직선으로 놓여 ‘액자 속의 액자’처럼 보이는 중첩 효과로 공간의 연속성을 보여준다.

또한 각 채들은 대부분 한지가 발라진 창호로 벽체를 이루고 있어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열거나 접어서 들어 올려 천장에 매달아 사용함으로써 상당히 개방적이고 가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대청은 창호나 벽체가 일절 없이 시선을 외부로 향하게 하여 완전히 열린 공간으로 개방감을 보여준다. 흔히 대청마루라고 하는 대청은 채의 방과 방 사이에 있는 큰 마루로서, 벽이 없고 전면이 마당과 마주보고 있는 반 내부공간이다. 누각구조의 영향으로 골조만 남기고 벽을 사라지게 하여 안과 밖의 구별을 모호하게 하는 구조로써 자연환경과 가장 적극적으로 어울릴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공간의 연속적 흐름은 단위공간이나 영역이 벽이나 건물로 막혀 있지 않고, 상호 뚫려있어 시야가 계속하여 트여 있을 때를 말한다. 이러한 공간의 연속은 다른 공간에 대해서 공간적 흐름이 개방적으로 열려 있다는 뜻으로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난다. 한국의 내부공간은 전후좌우로 개방적인 흐름을 연속시키는 공간성을 보여주고 있다. 내부공간의 공간적 관계에 있어서는 방과 방은 연속적인 일렬로 배치가 되어 미닫이 문을 모두 열면 공간이 이어지며, 안마당과 대청, 뒷마당으로 연결된 공간의 형

식은 공간의 강한 연속성을 느끼게 해준다.¹⁵⁾

이처럼 한국건축은 마당이 축을 이루면서 건물이 배치되어 있어, 이 축을 따라 공간이 연속적으로 배치되면서 자연스러운 연속성을 이루고 있다.

2) 형태(形態)의 포용성

포용성은 자연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형태를 인위적으로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거나, 조형물의 형성 과정에서 생긴 변형과 변화까지도 그대로 수용하는 지극히 자연적인 ‘변화의 미’를 의미한다. 여기서 ‘변화의 미’란 살아 있는 생명력의 힘을 말한다. 자연이 지니고 있는 불규칙하고 비대칭적인 기하학적 형태에서 살아 있는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데, 포용성은 이러한 자연스러움을 아우르는 특성이다.¹⁶⁾

한옥의 형태적 특징은 길게 이어진 산세의 곡선, 소나무로 대표되는 나무의 곡선 등 부드럽고 완만한 곡선에서 나타나는데, 이것은 한국의 지형적, 자연적 특징에서 온 한국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선조들은 이러한 곡선의 자연과 어우러지기 위한 한옥을 짓고 살았다. 절제된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루어진 외형의 선뿐 아니라 안에서부터 시작되어 바깥쪽으로 균일하고 연속된 선으로 건축된 지붕의 구조는 선의 조화를 중시한 한옥의 철학을 보여준다.

이 곡선미는 지붕과 처마에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무로 만들어진 기둥들의 휘어진 모습에도 드러난다. 우리나라 전통 건축의 나무 기둥들은 인공적으로 손질되지 않은 채, 나무 원래대로의 휘어지고, 구부러진 모습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선조들로부터 훌륭한 기술적 재주를 타고났다. 이런

15) 신경화,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작품주택에 나타난 전통성의 현대적 구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21~22

16) 장임정, 「한옥을 상징하는 전통의장의 친자연적 요소에 관한 연구 : 재료와 구조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11

재주가 많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한옥을 제작할 때 인위적 기교를 꺼리고 자연적인 친환경 방법을 터득하여 전통적 정서를 가지고 건축을 했다. 자연스러움을 중시하였기에 깔끔한 마무리보다는 자연과 함께 어울리는 마감을 선택했다. 그러므로 당연히 손맛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자연의 목재가 자란 형태 그대로 다듬지 않고 사용하였다. 특히 한옥의 구조 중 기둥이 보는 여러 구조 중에 매우 중요하고 눈에 띄는 곳이지만 자연 목재를 천연(天然)의 친환경 상태로 사용하였다. 자연의 여백이 한옥에서는 절제와 비움의 조형의식으로 나타나며 한옥의 자연스러움이 전통 목가구 비례와 공간의 여유로 함께 조화를 이룬다.¹⁷⁾

전체적으로 보면 사각의 형태를 띠는 한옥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자연의 비정형(非定型)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옥 구조의 대부분은 직선을 기본으로 수직·수평의 원칙을 바탕으로 기둥, 대들보, 문틀 등의 구조적 뼈대가 제작되며, 이는 수직·수평의 구조에서 오는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서 꼭 지켜져야 하는 부분이다. 안정적인 직선적 구조와 부드러운 곡선과의 조화가 한옥의 아름다움을 배가시키며, 자로 잰 듯이 규격화된 것만이 아름다운 것은 아니라는 선조들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집의 서까래나 기둥뿐 아니라 돌담이나 기단을 세울 때에도 나무의 흰 부분이나 돌의 모난 부분을 크게 가공하지 않고 흰 그대로 사용하여, 동일한 재료를 사용해도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자연의 형태와 장식을 인위적으로 바꾸지 않고 조화를 이루며 사용함으로써, 비대칭과 비정형의 형태에서 포용성을 느낄 수 있다. 한옥과 자연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모습에서, 형태적으로 주변의 산세를 포용하고 공존하고자 하는 특성이 나타난다.

17) 김군선, 「한국의 전통 자연관과 현대 목가구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p.16~17

3) 색채와 질감의 소박성

한국의 건축물 중 궁궐이나 사찰과 같은 건물은 유채색이 주조를 이루고 있는 반면에 일반 서민의 주택은 있는 그대로의 색, 무채색이 주조를 이룬다. 채색한다는 능동적 행위개념보다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연 그대로의 빛깔이라고 말해야 옳을 것이다. 벽이나 창은 창호지, 닥지, 회벽 등의 회백색조(灰白色調)이며, 벽에 걸린 옷이 흰색, 회색, 검정에 이르는 회색조이고, 심지어 문인화까지도 색채가 없다. 실내에 있는 백자, 부엌살림, 장판 등 무채색이 주조를 이루는 색조화이다. 옥외풍경, 건물 그 자체도 회색 돌담, 회청색 기와, 누런색 토담 등 강한 유채색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게 해서 회색조의 빛깔은 자연의 사계변화에 따른 풍경의 색채와 잘 어울리는 건축물이 되는 것이다.¹⁸⁾

소박성은 드러내거나 눈에 띄고자 하는 욕구가 배제된, 순수하고 겸허한 가운데서 더 큰 감동을 담고 있는 미이다. 즉 표현에 있어 도에 넘치는 법이 없고 평범하면서도 심오한 미를 말한다. 이는 불교의 무아사상과도 관련이 있지만 그보다는 유교적 사상이 근간이 되어 과장, 치장, 흠잡을 데 없는 손질, 세련된 표현도 억제하는 데서 비롯된 특성이다.¹⁹⁾

벽, 바닥, 천장 등 한옥 실내의 곳곳을 둘러보면 기교가 넘치는 세부장식보다는 재료 자체에서 오는 자연스러움이 더 도드라진다. 방의 천장과 벽에는 은은한 흰색 한지가 발라져 있고, 바닥 역시 종이에 기름을 먹인 장판지로 마감되어 있다.

자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와, 이를 소재로 가공한 한지, 그리고 회벽과 장판지가 만들어내는 질감과 색채의 조화가 매우 자연스럽게 중성적이며 거의 색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단아하다. 대청의 질감과 색채사용을

18) 정시화, 「한국인의 색채의식 : 한국전통 문화속에 나타난 색채의 특성」, 미술세계, 1992, p.40 요약인용

19) 장임정, 「한옥을 상징하는 전통의장의 친자연적 요소에 관한 연구 : 재료와 구조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10

보면 주로 목재와 회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된 모든 목재는 자연 그대로의 형태와 나뭇결이 살아나도록 하고 옹이나 갈라짐 등의 흠도 자연스러움으로 수용하였다. 색채 뿐 아니라 장식이나 문양이 크게 드러나지 않아 소박하고 편안한 공간이 된다.²⁰⁾

이러한 선조들의 자연주의적 표현은 자연을 관조하고 솔직하게 표현함으로써 거칠면서도 소박한 한옥 특유의 조형적 특성을 보여준다. 자연재료가 갖고있는 본성을 충실하게 지키고, 재료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조화롭게 사용한 전통한옥의 은은한 색채와 자연적인 질감은, 단순하면서도 정갈한 분위기를 갖는 실내공간과 다른 건축요소들과 잘 어우러져 우리의 민족만이 가질 수 있는 한옥의 건축양식으로 전해 내려왔으며, 선조들이 추구한 자연주의를 바탕으로 소박성을 가지고 있다.

20) 정현재, 「한옥양식의 현대적 공간접근 계획에 관한 연구 : 아파트 평형별 단위세대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테크노 디자인 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22

<표 1> 한옥의 조형적 특성 분석

	조형적 특성	이미지	특징
①	공간(空間)의 연속성	 <p>(출처: 한국의 전통 공간) (출처: 한국의 문과 창호)</p>	자연을 활용한 건축 공간의 중첩 공간의 확장 개방적 연속적
②	형태(形態)의 포용성	 <p>(출처: 한국의 꽃살·기둥·누각) (출처: 한국의 전통 자연관과 현대 목가구 연구)</p>	선과 면의 조화 곡선과 직선의 조화 규칙적 반복의 율동감 포용 친자연적
③	색채와 질감의 소박성	 <p>(출처: 한국의 창·문) (출처: 한국의 꽃살·기둥·누각)</p>	은은한 색채 자연에서 온 재료 본연의 색채와 질감 소박함 친자연적

3. 한옥의 상징성

본 연구자는 한옥의 조형적 특성을 공간의 연속성, 형태의 포용성, 색채와 질감의 소박성으로 분류하고 재해석하여 다음과 같이 공간의 순환과 조화라는 한옥의 상징성을 도출하였다.

한옥의 상징성 중 순환은 시작과 끝이 없어 막히지 않고, 하나로 통하는 것이다. 방과 방 사이가 개방되어 서로 통하고, 마당과 대청마루 또한 개방되어있다. 한옥의 순환은 공간에 적용되어 막힘없이 통하는 동선의 구조를 만들어냈다.

한옥의 순환을 특히 잘 드러내는 바람길은 방의 모든 창문이 개방되어 외부의 바람이 들어올 정도의 길이 만들어 지는 것으로, 이 바람길의 끝에 서서 다른 끝을 바라보면 창문들이 중첩되면서 만들어지는 공간감을 느낄 수 있어 공간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바람길 뿐 아니라 대청의 분합문을 천장에 걸어 놓으면 닫혀있던 공간이 확장되어 통풍이 될 뿐만 아니라, 한옥 특유의 열리는 벽에 의한 비움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창호의 열리는 정도와 방식, 위치와 크기에 따라 비움의 정도가 달라지며 다양한 공간 연출이 가능했다. 이러한 한옥의 공간은 열림으로써 비워지게 되고, 비워짐으로써 공간과 공간, 내부와 외부가 막힘없이 통하는 순환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공간이 막힘없이 서로 통한다는 것은 순환의 뜻으로 막다른 길이 아닌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이 함께 어우러지도록 만들어진 순환형 구조 덕분에 자연을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고, 주위의 자연을 모두 받아들임으로써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다. 이와 같이 한옥은 공간 하나 하나가 주체적으로 자기 자리를 잡고 자기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서로 단절되지 않고 소통하는 개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자에게 있어 한옥의 개방성으로 인해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이 차별

없이 어우러지는 것은 공간의 투명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투명성은 공간을 중첩시키고 곧 심리적 투명성을 보여주며 공간의 연속성이라는 조형적 특성을 내재하고 있다. 한옥에서 나타나는 공간의 투명성은 유리와 같은 물리적 투명이 아니라 공간과 공간, 내부에서 외부로의 순환을 통해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는 심리적 투명성이다.

한옥의 심리적 투명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창호는 외부와 내부 공간을 구분하는 기능뿐 아니라 햇빛 조절 기능을 가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창호지의 반투명 재질은 햇빛을 통과시켜 겨울철에 따뜻한 실내온도를 유지해 주고, 빛의 유입을 조절하여 외부의 햇빛을 분산시키고, 공간 내부로 자연의 은은한 빛을 끌어들여 공간에 투명성을 더했으며 이러한 빛의 유입으로 내부에서도 외부의 자연을 느낄 수 있었다. 이처럼 한옥의 개방성으로 인한 순환구조는 내부와 외부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였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순환이라는 한옥의 상징성에서 창과 문, 그리고 대청의 누각구조에서 오는 직선적 요소와 수직·수평 구조를 바탕으로 모티브를 추출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한옥의 또다른 상징성은 조화이다. 한옥은 물질적인 욕심이 아닌 자연의 본질을 보존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중시하였다. 이것은 자연적인 수수함에서 오는 색채와 질감의 소박성을 존중하며 지나친 장식과 기교에 대한 경계를 보인다. 최소한의 가공을 통해 재료의 쓰임새를 최대화하고, 인간에게 이로운 공간을 만들어냈다. 선조들은 자연의 질서체계에 순응하고, 자연과 함께 융합하려는 절제의 태도를 중심으로 자연을 최대한 이용하여 자연과 어울리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한옥은 자연에 대한 순응을 바탕으로, 자연 그대로의 순수한 요소들로 하여금 소박한 멋으로 승화시켰다. 건물의 크기와 실내공간에 있어서도 휴먼 스케일을 적용하여 인간적인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단정하고 간결하게 지

어졌다. 이것은 자연의 위대함에 도전하지 않는 소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또한, 필요 이상으로 장식하거나 기교를 부리지 않고 겸손하고 친밀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세밀한 기교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부드러움과 소박함을 느낄 수 있도록 단순한 선적 요소들로 한옥 특유의 울동감을 만들었으며 때문에 한옥의 형태는 아늑한 안정감, 평온한 분위기와 함께 역동적, 활동적인 분위기 모두를 자아내는 풍부한 공간이 된다²¹⁾.

또한 한옥은 수직과 수평선, 지붕의 곡선 등 여러 형태의 선들이 이상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이다. 처마 선은 수직 수평으로 하늘과 땅이 교차되고, 상승하는 에너지와 그 힘을 누르는 절제미가 만나는 지점으로 긴장한 듯 보이지만 편안함이 느껴지는 아름다움을 보여준다.²²⁾

주변의 산세와 지세에서 나오는 완만한 곡선, 과장되지 않은 여백의 미까지 선조들이 자연을 관조하며 얻은 삶의 유연함이 한옥에 스며들어 형태의 포용성으로 반영되어 있다. 집을 자연의 일부로 여겨 주변의 자연환경과 어울리도록 집의 방향을 잡고, 자연에서 가져온 재료를 사용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집을 지었던 선조들의 생활문화는 매우 소박하고 자연스러웠으며, 내부의 공간만이 아닌 외부의 자연환경까지도 우리의 세계라는 인식이 강했던 만큼 한옥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관조와 절제에서 오는 한옥의 조화는 자연과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며, 형태의 포용성과 색채와 질감의 소박성이라는 조형적 특성을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조화라는 한옥의 상징성에서 본 연구자는 산세의 완만한 곡선적 요소와 이것을 닮은 지붕과 기와에서 오는 유연한 곡선적 요소를 바탕으로 모티브를 추출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21) 서한울, 「한옥의 친자연성을 중심으로 인간에게 이로운 요소를 적용한 공동주택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26

22) 최수원, 「한옥의 조형 이미지를 재구성한 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3

III. 작품 제작 및 분석

1. 작품 제작 의도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국제화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문화적인 정체성과 독창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화를 그대로 계승하고 보존하는 것만이 아닌, 전통문화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본 연구자는 우리나라 문화 중 한국의 자연환경과 생활배경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전통문화인 ‘한옥’의 조형적 특성과 상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모티브를 추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작품 아이디어를 전개와 직물 조직 설계 및 제작을 통해, 직물 작품으로써 한국 전통문화의 가치를 확립하고, 우리 전통문화의 현대적 발전 가능성을 세계 속에 알리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의 연속성, 형태의 포용성, 색채와 질감의 소박성 3가지로 분류한 한옥의 조형적 특성을 바탕으로 순환과 조화라는 한옥의 상징성을 도출하여 작품을 진행하였다. 공간의 연속성이라는 한옥의 조형적 특성에서 오는 순환은 내부와 외부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심리적 투명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본 연구자는 이러한 순환이라는 상징성에서 창과 문, 그리고 대청의 누각구조에서 오는 직선적 요소와 수직·수평 구조를 바탕으로 모티브를 추출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또한 형태의 포용성과 색채와 질감의 소박성이라는 조형적 특성에서 오는 한옥의 조화는 자연과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며, 조화라는 한옥의 상징성에서 본 연구자는 산세의 완만한 곡선적 요소와 이것을 닮은 지붕과 기와에서 오는 유연한 곡선적 요소를 바탕으

로 모티브를 추출하여 직물 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제작에 있어서는, 느리고 천천히 진행되는 반복의 결과물인 직물의 특성이 정적이고 고즈넉한 한옥의 모습과 닮아있어 본 연구의 작품 제작에 가장 적합한 기법이라고 생각하여 직물 작품으로 표현하였으며, 평직, 능직 등의 기본 조직과 한옥의 조형적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변형 직물 조직을 개발하여 직물을 제작하였다.

한옥의 조형적 특성을 시각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통해 현대의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의 전통문화가 계승되고 발전되길 바라며, 나아가 국내뿐 아니라 세계의 외국인들도 한옥의 고즈넉한 아름다움에 접근할 수 있고,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소중한 가치를 재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작품 제작

1) 작품 제작 과정

본 연구자는 직물설계를 통한 제직 작업으로 직물 작품을 전개하였으며 작품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 등의 문헌연구를 통해 한국인들의 생활문화와 한옥의 형성 배경을 분석하고 한옥의 조형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한옥의 조형적 특성을 공간의 연속성, 형태의 포용성, 색채와 질감의 소박성의 3요소로 분류한다.

셋째, 한옥의 조형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순환과 조화라는 한옥의 상징성을 도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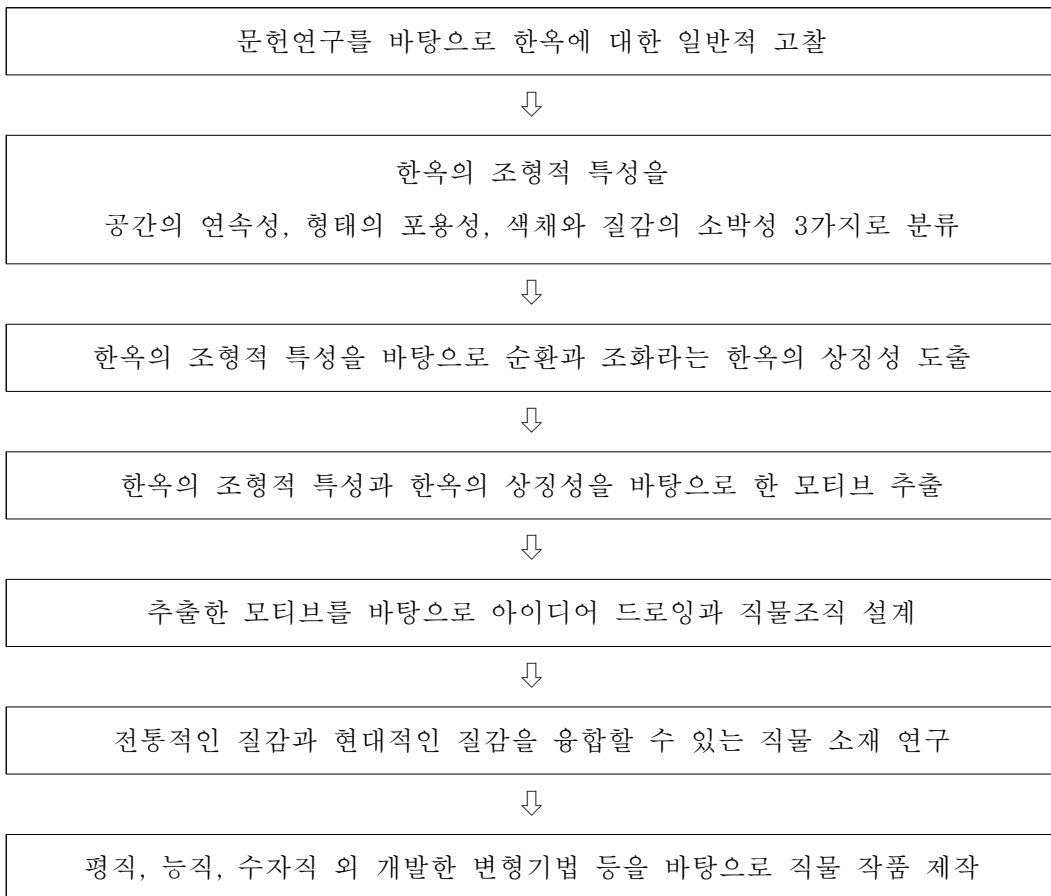
넷째, 한옥의 조형적 특성과 상징성에서 비롯된 심상을 바탕으로 수집한 자료로부터 모티브를 추출한다.

다섯째, 추출한 모티브를 바탕으로 현대적인 직물 작품으로 시각화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드로잉하고, 이에 따른 직물조직을 설계한다.

여섯째, 한옥의 조형적 특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소재 연구를 통해, 직물 제작을 위한 실을 한지사, 실크사, 레이온사의 3종류로 한정하고 합사하여 사용한다.

일곱째, 설계한 직물조직을 바탕으로, 평직, 능직 등의 기본 조직과 한옥의 조형적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변형 직물조직을 개발하여 직물을 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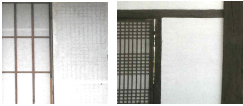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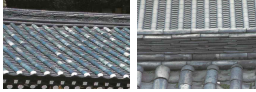





<표 2> 작품 제작 과정



2) 색상 및 소재

작품 제작에 사용되는 색상으로는 한옥의 친자연성을 표현할 수 있는, 건축재료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자연 그대로의 빛깔과 한국의 음양오행설에 기반을 둔 전통색인 오방색을 사용한다. 한옥의 회벽이나 창·문의 창호지, 닥지 등에서 나타나는 회백색조, 기와의 회청색 등 자연 그대로의 빛깔을 주조색으로 사용하고, 한국의 전통색인 오방색의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을 보조색으로 사용하여 포인트를 준다.

<표 3> 작품 제작 색상 분석

	색상	이미지	특징
①	회백색	 창호지와 벽의 회백색 (출처: 한옥의 창·문)	창호지나 벽지의 닥지, 회벽의 은근한 회백색, 자연 그대로의 색
②	회청색	 기와지붕의 회청색 (출처: 한국의 지붕·선)	청렴과 품위를 의미하는 청색, 기와지붕 그대로의 회청색
③	오방색 (五方色)		청·녹색 계통의 목(木), 나무의 기질로서 시작, 진출, 희망, 희열, 기쁨의 의미
			빨간색 계통의 화(火), 불의 기질로서 에너지, 열정, 성장, 확산의 의미
			노랑·베이지 계열의 토(土), 흙의 중화, 변신, 정직, 신용, 귀화 등의 의미
			흰색·은색 계열의 금(金), 쇠의 기질로서 강인함, 인내, 결단, 결실, 실용의 의미
			검정·어두운색 계열의 수(水), 물의 기질로서 생명의 근원, 에너지, 지혜 등의 의미

작품에 사용되는 소재로는 한지사, 실크사, 레이온사 3가지로 한정하였다.

한지사는 30수 한지사(30수/2합사)와 한지사와 2mm 한지사(2mm/5합사), 7mm 한지사(7mm/단사)를 사용하였는데, 30수 한지사는 닥 85%, 마 15% 두 가지가 합사되어 있는 30수 2합사 꼰사로 지누이도와 비슷한 굵기를 가지고 있어 전통 소재의 느낌을 주면서도 현대 소재로써도 손색이 없다. 100% 한지를 꼬아 만든 5합사의 2mm 한지사, 한지 단사로 만들어진 7mm 한지사는 한지의 질감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 전통 소재의 느낌이 부각되며, 다양한 색상을 가지고 있어 디자인의 표현에 제한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작품에 따라 다른 종류의 한지사를 사용하였다.

실크사는 선조들이 비단을 짜고 자수를 하던 실크 100%로 이루어진 실로, 실크 본연의 은은한 광택감과 다양한 색상으로 전통 소재의 고급스러운 느낌이 부각된다. 실크사는 굵기에 따라 아나이도(20수/4합사)와 지누이도(30수/3합사), 그리고 견사(60수/3합사)로 분류되며, 본 연구에서는 아나이도와 지누이도 두 가지를 필요에 따라 합사하여 사용하였다.

레이온사(Viscose Rayon)는 정제된 낙엽송의 목재펄프나 목화 씨앗의 부스러기를 재료로 하는 화학적 기법으로 제조된 섬유이다. 인견(人絹) 원단의 재료가 되는 만큼 실크에 견줄 만한 광택감을 가지고 있으며, 실크보다는 내구성이 좋으며 변색이 잘 되지 않아 인테리어 직물에 탁월한 현대 소재가 된다. 실의 두께에 따라 인견사(120D/12합사)와 자수사(120D/2합사)를 필요에 따라 합사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 소재인 한지, 실크와 현대 소재인 레이온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전통과 현재의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표현할 뿐 아니라 융합 소재를 모색하여 인테리어 직물로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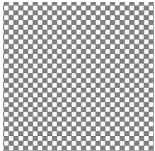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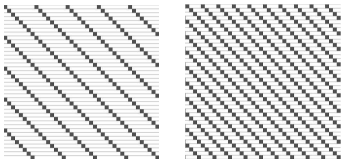
<표 4> 작품 제작 소재 분석

소재		이미지	특징
①	한지사	(30수/ 2합사) 	한지의 원료가 되는 닥85%와 내구성을 위한 마15%로 창호지의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백색의 한지사를 사용하였다.
		(2mm/ 5합사) 	한지100%를 가늘게 만들고 5겹을 합사하여 만들어진 끈사로, 기와의 회청색을 표현하기 위해 회청색 계열의 한지사를 사용하였다.
		(7mm/ 단사) 	얇은 한지100%를 여러 겹 접어 실로 만든 단사로, 기와의 사선 간격이 넓어지는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 두꺼운 한지사를 용하였다.
②	실크사	아나이도 (20수/ 4합사) 	실크사는 선조들이 자수할 때에 사용하던 실로, 실크 100%로 이루어져 있으며, 굵기에 따라 아나이도와 지누이도, 견사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세가지의 실크사 중 가장 굵은 아나이도와 중간굵기의 지누이도 두가지를 필요에 따라 합사하여 사용하였다.
		지누이도 (30수/ 3합사) 	
③	레이온사	인견사 (120D/ 12합사) 	인견원단의 소재가 되는 레이온사는 실크와 견줄 수 있는 광택을 가지면서도 현대기술로 인해 변색이 적고 내구성이 높다. 전통소재인 한지사와 실크사에 현대적인 느낌을 가미하기 위해 레이온사를 사용하고, 굵은 인견사와 가는 자수사 두가지를 필요에 따라 합사하여 사용하였다.
		자수사 (120D/ 2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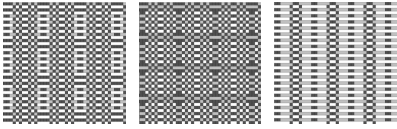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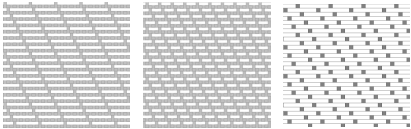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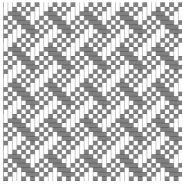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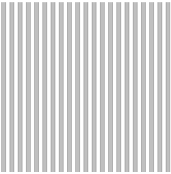
3) 제작 기법

본 연구에서는 70cm가량의 폭을 가진 직물 제작을 위해, 28inch 8종광 10페달 직기를 사용하여 20번 바디²³⁾를 사용하여 직물을 제작하였다. 한옥의 곡선과 직선의 조화를 표현하기 위해 평직, 능직의 기본조직을 바탕으로 연구자의 필요에 따라 변형시킨 다양한 직물조직을 개발하였다. 평직과 능직을 융합시킨 변형능직과, 변형평직인 리브조직을 변형시킨 다양한 조직 등의 변형조직을 사용하여 직물을 제작하였다. 직물을 제작한 뒤, 브로케이드 기법을 응용하여 개발한 엠브로이드 기법으로 지붕 선이 늘어지는 듯한 곡선을 표현하고, 한옥의 바람이 드나드는 바람길의 공간감을 표현하기 위해 평직의 직물 옆에 매듭 기법을 사용하여 경사를 늘어뜨리는 듯한 효과를 주었다.

<표 5> 직물조직 분석

	조직	이미지	특징
①	평직		직물조직 중 가장 기본 조직으로, 경사와 위사가 번갈아 교차되는 조직이다.
②	능직		사선의 형상이 나타나는 능직은 평직에 비해서는 내구성이 약하지만 부드러운 직물을 만들 수 있다.

23) 바디: 경사의 밀도를 정하고 실을 쳐서 짜는 부품으로 20번 바디는 1inch 당 20줄의 실이 들어가는 바디를 뜻한다.

③	변형평직		<p>변형평직인 리브조직을 응용한 조직으로, 창살의 수직·수평적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 밀도와 간격을 다르게 하여 세가지의 변형평직을 설계하였다.</p>
④	변형능직		<p>능직과 평직의 장점을 융합시켜 설계한 조직으로, 평직의 튼튼함과 능직의 장식성을 모두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각도의 변형능직을 통해 기와지붕의 사선을 표현하고 있다.</p>
⑤	지그재그 능직		<p>위에서 본 기와의 모습처럼 지그재그형태로 나타나는 패턴을 응용하였다.</p>
⑥	매듭		<p>공간감을 표현하기 위해 실을 위의 봉에 매듭지어 늘어뜨림으로써 경사가 발처럼 늘어져있는 듯한 효과를 준다.</p>

3. 작품 분석



<작품 1> 'Permeated', 620×3100mm / Silk, Rayon

<표 6> 작품 1 'Permeated'의 분석

이름	Permeated	<div style="text-align: center;">색상</div> 
크기	620×3100mm	
재료	레이온사(120D/12합사)	
바디, 종광	20번 바디, 8종광	
기법	평직, 매듭	
제작연도	2019	
아이디어 프로세스		
		
직물조직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평직</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매듭</p> </div> </div>		

본 연구자는 한옥의 바람이 지나는 길목에 서서 끝을 바라보았을 때 끝없이 펼쳐지는 공간감을 느꼈고, 끝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끝에 무엇이 있을지 상상하게 되는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 한옥은 집의 한쪽 끝부터 다른 쪽 끝까지 서로 통해있어 그 사이로 바람이 드나드는데, 그것을 바람길이라고 한다. 바람길은 건축을 통해 기후환경을 활용하는 선조들의 지혜를 보여주고 있다. 본 작품에서는 여러 개의 문이 하나로 통하여 바람길을 형성하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두 가지 직물의 중첩을 통해 바람길을 형상화하였다.

한옥 내부의 벽을 상징하는 양옆의 회색 부분은 평직으로 제작하고, 바람길을 상징하는 중앙 부분의 연회색 부분은 실을 매듭짓는 방식으로 늘어뜨려 뒤에 중첩되는 직물이 비치도록 표현하였다. 뒤에 중첩되는 직물은 평직으로 제작한 타피스트리 직물로, 바람길 너머로 보이는 자연의 산세를 표현하여 한옥의 순환구조에서 나타나는 자연과의 조화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재료의 선택에 있어서는 레이온사를 사용하여 실크와 같은 광택감을 주면서도 내구성을 더했다. 자연환경에 순응하는 선조들의 인내와, 동시에 또 자연을 활용하여 집의 순환구조를 만들어낸 지혜를 표현하기 위해 한국의 전통색인 오방색 중 백색과 회색을 사용하였다. 바깥쪽부터 중회색, 연회색, 백색까지 넘어가는 그라데이션 효과를 통해 공간감과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2> 'Cross the door', 750×2350mm / Hanji, Silk, Rayon

<표 7> 작품 2 'Cross the door'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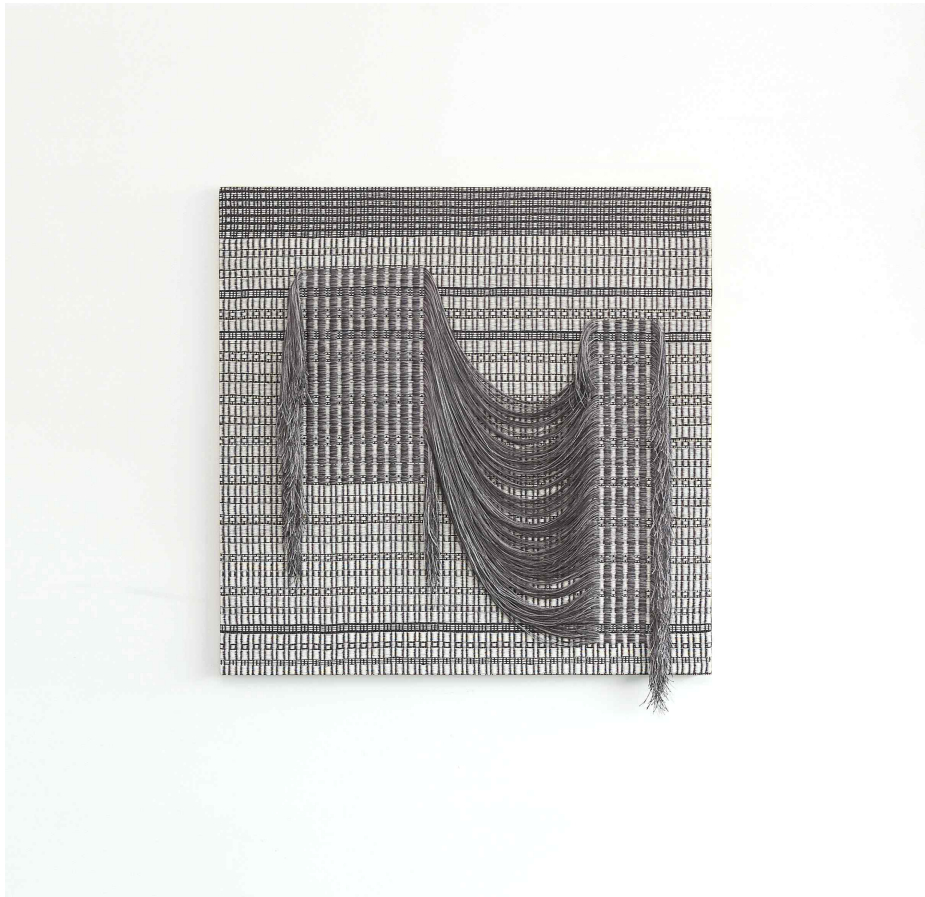
이름	Cross the door	색상 
크기	750×2350mm	
재료	한지사(30수/2합사) 실크사(20수/4합사) 레이온사(120D/12합사) 레이온사(120D/2합사)	
바디, 종광	20번 바디, 8종광	
기법	평직, 변형능직	
제작연도	2019	
아이디어 프로세스		
		
직물조직		
		
평직		변형능직

본 연구자에게 있어서 문은 소통의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한옥의 문은 열림으로써 공간이 비워지게 되고, 공간과 공간, 내부와 외부가 막힘없이 통하는 순환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순환의 구조 덕분에 한옥은 공간 하나 하나가 주체적으로 자기 자리를 잡고 자기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서로 단절되지 않고 소통하는 개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공간의 순환을 표현하기 위해 문과 문이 연속되는 모티브로 직물 작품을 디자인하였다.

또한 햇빛 조절 기능을 가지는 창호지를 사용함으로써 밖이 보이지는 않지만 소리가 통하고 공기가 통하여 내부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한옥 창호만의 심리적 투명성을 표현하기 위해, 불투명한 직물이 아닌 반투명성을 띤 직물조직을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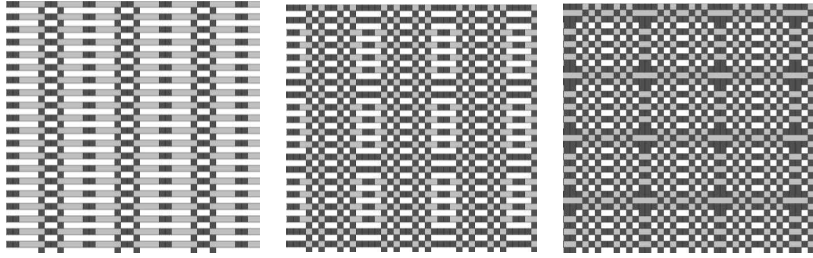
문을 감싸고 있는 문틀과 벽을 상징하는 배경의 회색 부분은 평직으로 안정감 있게 제작하였고, 문을 나타내는 백색 부분과, 햇살이 창호지를 투과하며 만들어내는 그림자를 나타내는 흑색 부분은 평직 위에 중첩시킨, 변형 능직으로 변화를 주었다. 또한 바람길에 의해 공간이 개방되며 연속적으로 보여지는 여러 겹의 문을 표현하기 위해 제작된 직물 위에 자수로 라인스티치를 추가해 주었다. 조직의 변화와 색상을 이용한 화면분할의 효과를 통해 문 속으로, 공간 속으로 걸어들어가는 듯한 연속성을 표현하고 있다.

자연에 순응하는 인내와 찬바람을 막고 보온력을 높이기 위해 문에 창호지를 바른 선조들의 지혜를 담아, 본 연구자는 창호지의 백색과 오방색의 회색, 그리고 흑색을 사용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재료 선택에 있어서는 창호지 특유의 질감과 은은한 백색의 색채를 표현하기 위해 한지의 재료인 닥으로 만들어진 한지사를 사용하고, 전통적인 느낌과 동시에 현대적인 직물을 제작하기 위해 한지사와 레이온사, 그리고 실크사를 합사하여 사용함으로써 내구성은 물론 은은한 광택감까지 함께 표현하였다.



<작품 3> 'Permeated_HG', 600×600mm / Hanji, Silk, Rayon

<표 8> 작품 3 'Permeated_HG'의 분석

이름	Permeated_HG	색상 
크기	600×600mm	
재료	한지사(30수/2합사) 레이온사(120D/12합사) 레이온사(120D/2합사)	
바디, 중광	20번 바디, 6중광	
기법	변형평직	
제작연도	2019	
아이디어 프로세스		
		
직물조직		
 <p style="text-align: center;">변형평직</p>		

문살과 기둥, 그리고 벽은 형태도 기능도 다르지만, 본 연구자가 보는 시선에 따라서는 기둥이 모여서 문살이 되고, 문살이 벽이 되는 등 다양한 공간의 확장으로써의 흥미로운 가능성이 펼쳐진다. 기둥과 벽, 문틀에 의해 사각형이 형성되고, 그 자리에 문이 들어가며 여러 개의 사각형이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정사각형뿐 아니라 다양한 모양의 직사각형들이 만들어진다. 문살의 문양에서도 작은 사각형들이 반복되는 것은 하나의 기하학적 구조를 형성하고, 닫힌 문은 그 안에 펼쳐져 있을 공간의 연속성을 상상하는 기대감을 준다. 목재인 문살과 반투명한 창호지의 대비로 그 문양이 더욱 잘 드러나 심리적 투명성을 주고 있으며, 날씨·계절·시간에 따라 햇빛이 변하면서 문양의 느낌도 시시각각 변화하여 자연과의 조화를 보여주고 있다.

직물 제작에 있어서는 변형평직 중 하나인 리브조직을 사용하여, 다양한 간격과 색상으로 패턴의 변화를 주고 명암의 변화를 통한 중첩의 효과를 주었다. 이러한 조직의 변화와 화면분할의 효과를 통해 문과 문 사이의 무한한 공간감을 느낄 수 있으며, 나아가 공간의 연속성을 표현하고 있다.

창호지의 소박한 색채와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한지사를 5겹으로 합사하여 사용하고, 전통적이면서 현대적인 직물을 제작하기 위해 레이온사를 경사와 포인트로 사용함으로써 창호지와 문살처럼 한지와 레이온의 대비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백색과 남색을 주 색상으로 사용하여 이러한 창호지와 문살의 대비를 극대화 하였다.



<작품 4> 'Windoors_Y', 650×900mm / Hanji, Silk, Rayon

<표 9> 작품 4 'Windows_Y'의 분석

이름	Windows_Y	색상 
크기	650×900mm	
재료	한지사(30수/2합사) 실크사(20수/4합사) 실크사(30수/3합사) 레이온사(120D/12합사) 레이온사(120D/2합사)	
바디, 증광	20번 바디, 8증광	
기법	평직, 변형능직	
제작연도	2019	
아이디어 프로세스		
		
직물조직		
		
평직		변형능직

본 연구자는 한옥의 바람길에서 공간을 둘러보았을 때, 공간이 닫힌 곳이 없고 모든 길이 투명하게 뚫려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실제로 투명한 것은 아니지만 공간이 모두 뚫려있는 듯 자연의 바람과도 그대로 소통할 수 있기에 심리적으로 투명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 바람길의 끝에 어떤 경관이 펼쳐질지 상상하며 한옥의 구조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구성해보았다.

한옥은 기둥과 벽, 문틀에 의해 사각형이 형성되고, 그 자리에 문이 들어간다. 조형적으로 여러 개의 사각형이 만들어지며 화면이 분할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목재인 문틀과 문살, 그리고 반투명한 창호지의 대비로 그 문양이 더욱 잘 드러나며, 자연의 기후환경에 따라 햇빛이 변하면서 그 느낌도 시시각각 변화한다. 모든 문과 창문을 열어 놓으면 그 길로 바람이 지나다니는 한옥의 바람길을 통해, 바람을 이용하여 건축구조에 활용한 선조들의 지혜가 돋보이는 자연과의 소통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한옥의 중심에 있는 바람길을 표현하기 위해 오방색 중 황색과 회색을 주 컬러로 사용하였으며, 적색의 포인트를 통해 생명력을 불어 넣었다. 주 소재로는 황색과 회색의 레이온사를 사용하고, 그 안에 30수 한지사를 합사하여 한옥의 창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식물조직은 기본 평직과 변형능직을 사용하여, 창과 문의 기하학적 형태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경사를 걸 때에 미리 화면분할 구성을 통해 창과 문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설계하였다. 평직과 변형능직을 통한 식물 제작 후 엠브로이드 기법을 통해 적색의 실크사로 포인트를 주어 소통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엠브로이드 기법으로 더한 적색의 부분은 전시장의 환경과 관람자의 시선에 따라 가변적으로 보이도록 설계되어 바람길의 순환되는 무한한 공간감을 느낄 수 있으며, 나아가 중첩의 효과를 통해 공간의 연속성을 표현하였다.



<작품 5> 'Windows_R', 750×1250mm / Hanji, Silk, Rayon

<표 10> 작품 5 'Windows_R'의 분석

이름	Windows_R	색상
크기	750×1250mm	
재료	한지사(30수/2합사) 실크사(20수/4합사) 실크사(30수/3합사) 레이온사(120D/12합사) 레이온사(120D/2합사)	
바디, 종광	20번 바디, 8종광	
기법	평직, 변형능직	
제작연도	2019	
아이디어 프로세스		
		
직물조직		
		
평직		변형능직

본 연구자는 유년시절부터 한옥의 창살을 보고 있으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안정감을 느꼈다. 그것은 창살의 수직·수평적인 구조에서 오는 안정감과 더불어, 은은한 창호지에 비치는 창살의 문양이 반복되며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데에서 온 것이다.

그러나 한옥의 창살은 규칙 속에서도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방한을 위해 덧문이 쓰이면서 문이 여러 장 겹칠 경우 그 문은 서로 다른 창살을 사용하여 변화를 만들어 낸다. 연구자는 이러한 한옥의 창에서 나타나는 규칙성과 그 속의 잔잔한 변화감을 면분할로 재구성한 작품을 제작하였다.

한옥의 기하학적인 창살을 표현하기 위해 경사의 색상에 변화를 준 뒤 경사의 색상 구성과 같은 위사를 사용하여 창살의 수직·수평적 문양을 표현하였다. 덧문에서 나타나는 규칙 속의 다양한 울동감을 표현하기 위해, 사각형 구조의 크기와 모양에 변화를 주고, 문 밖으로 연속되어 보이는 기와 지붕의 곡선적 형상을 표현하기 위해, 평직으로 제작한 직물 위에 대비되는 컬러와 소재를 사용한 엠브로이드 기법을 통해 중첩하였다. 문과 지붕의 중첩을 통해 공간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순환구조를 통한 자연과의 소통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규칙 속 변화감을 자연적으로 만들어낸 선조들의 지혜를 표현하기 위해 회색의 레이온사와 30수 한지사를 합사하여 주 소재로 사용하고, 단순한 기하학적 문살에서 나타나는 변화감을 표현하기 위해 적색 실크사를 사용하였다.



<작품 6> 'Windows_B', 750×1250mm / Hanji, Silk, Rayon

<표 11> 작품 6 'Windows_B'의 분석

이름	Windows_B	<p>색상</p> 
크기	750×1250mm	
재료	한지사(30수/2합사) 실크사(20수/4합사) 실크사(30수/3합사) 레이온사(120D/12합사) 레이온사(120D/2합사)	
바디, 종광	20번 바디, 8종광	
기법	평직, 변형능직	
제작연도	2019	
아이디어 프로세스		
		
직물조직		
		
평직		변형능직

대청에서 문간을 바라보고 있으면, 대청의 누각구조와 문간의 지붕이 만 들어내는 조화가 아름다울 뿐 아니라 공간의 연속성마저 느껴진다. 마치 액자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수직·수평의 구조가 반복되며 집 안에 집이 들어있는 듯 보인다. 이것은 대청과, 대청이 품고있는 지붕의 조화를 통해 한옥의 순환이라는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청에서 보이는 누각구조의 수직·수평적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 경사 색상의 변화를 주도록 설계하고 같은 색상 구성의 위사를 사용하였다. 기본적으로는 수직·수평 구조의 직물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 위로 지붕 선의 중첩을 통해 한옥 내부와 외부의 소통을 표현하였으며 자연과 소통하고자 순환구조의 집을 짓고 생활한 선조들의 지혜를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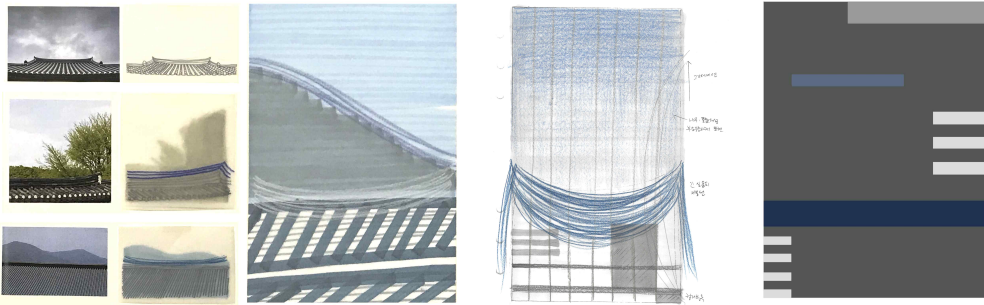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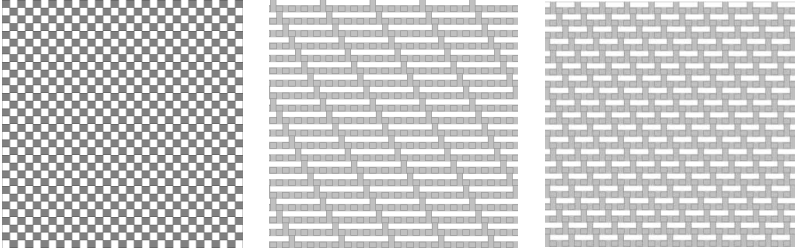
주 소재로는 회색 계열의 레이온사를 사용하여 현대 직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포인트 소재로 흰색의 30수 자수사와 청색 계열의 실크사를 사용하였다. 먼저 한옥의 수직·수평적 구조를 표현하기 위해 연회색과 중회색 두 가지의 경사를 면분할하여 걸고, 그와 같은 분할구성의 위사로 평직의 직물을 제작하였다. 그 안에 각각 분리되어 있는 방을 표현하기 위해 변형능직으로 불규칙적인 사각형의 형태를 반복하였다. 반복되는 스트라이프 문양으로 지붕을 위에서 보는 듯, 집 속의 집이 존재하는 듯한 문양을 느낄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그리고 직물을 완성한 후, 한옥의 구조(내부)와 지붕의 선(외부)의 소통을 표현하기 위해, 청색 계열의 실크사를 소재로, 엠브로이드 기법을 활용하여 직물 위에 지붕의 곡선을 표현하였다. 수직·수평 구조 위에 중첩된 곡선을 통해 한옥의 무한한 공간감과 소통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작품을 가변적 설치를 통해 전시장의 환경이나 관람자의 시선에 따라 무한한 변화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도록 하였다.



<작품 7> 'Connection', 750×1250mm / Hanji, Silk, Rayon

<표 12> 작품 7 'Connection'의 분석

이름	Connection	색상
크기	750×1250mm	
재료	한지사(30수/2합사) 실크사(20수/4합사) 실크사(30수/3합사) 레이온사(120D/12합사) 레이온사(120D/2합사)	
바디, 증광	20번 바디, 8증광	
기법	평직, 변형능직	
제작연도	2019	
아이디어 프로세스		
		
직물조직		
		
평직		변형능직

주변의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높이와 산세의 굴곡을 닮도록 지어진 한옥의 지붕선은 본 연구자에게 있어 한옥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졌다. 선조들의 포용성과 소박성을 닮아 한옥의 지붕은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라, 주위의 자연환경에 어울리도록 높이와 기울기를 조절하여 지어졌다. 그러한 선조들의 자연주의적 사상이 본 연구자에게 매우 흥미롭게 다가왔고, 그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본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다.

자연의 산세와 어우러지는 한옥의 지붕 선을 통해, 우리는 자연과 한옥간의 조화를 느낄 수 있다. 집을 지을 때 주변의 자연환경과 산세의 높이에 따라 기울기가 다르게 지어진 한옥의 포용적인 곡선을 직물로 표현하였다.

색상의 선택에 있어서는 청회색의 지붕을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진회색을 사용하여 그라데이션 되도록 하였으며,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라데이션되며 내려오는 변형능직의 화면구성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였다. 평직과 변형능직을 통한 화면 분할 직물 제작 후, 산세를 닮은 지붕의 곡선을 표현하기 위해, 엠브로이드 기법으로 실을 중첩시켰다. 중첩시킨 실은 그라데이션으로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고, 실의 끝에서 끝으로 이어진 연결이라는 특징을 통해 자연과 단절되지 않고 조화롭게 살던 선조들의 포용성을 형상화하고자 하였다.



<작품 8> 'Kiwa_1', 450×650mm / Hanji, Silk, Rayon

<표 13> 작품 8 'Kiwa_1'의 분석

이름	Kiwa_1	<p>색상</p> 
크기	450×650mm	
재료	한지사(30수/2합사) 한지사(2mm/5합사) 한지사(7mm/단사) 레이온사(120D/2합사)	
바디, 종광	20번 바디, 8종광	
기법	지그재그능직, 능직, 변형능직, 변형평직	
제작연도	2019	
아이디어 프로세스		
		
직물조직		
		
<p style="text-align: center;">지그재그능직 능직 변형능직 변형평직</p>		

하늘에서 본 여러 장의 기와지붕은 서로 간의 벌어진 정도를 조금씩 달리 하며 경쾌한 박자와 섬세한 울동감을 만들어낸다. 지붕과 지붕 사이가 서로 맞닿은 모습을 보면 그들이 서로 포용하며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에서 바라본 기와는 사선 형태를 띠고 있어 직물조직의 지그재그능직 형태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 본 연구자에게는 멀리서 본 한옥마을의 모습이 마치 하나의 패턴처럼 느껴졌고, 일정한 규칙성을 띠면서도 그 안에서도 각각의 크기나 원근감 등에서 변화가 느껴지는 것이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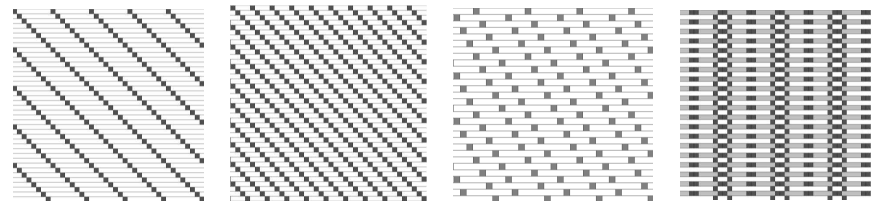
이러한 지붕의 다양한 사선을 표현하기 위해 15°~75°의 능직과 변형능직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지붕 간의 울동감을 표현하기 위해, 바디와 경사는 한가지 실로 진행하고 위사는 다양한 두께의 한지사와 레이온사를 함께 사용하였다.

기와지붕의 회청색을 표현하기 위해 회청색 계열의 2mm, 7mm 한지사를 주로 사용하고, 백색의 30수 한지사와 적색과 황색 레이온사를 포인트로 사용했다. 경사는 잘 부각되지 않는 위사페이스로 사선 문양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회청색 계열의 2mm, 7mm 한지사로 기와의 거친 질감을 표현하고, 백색의 30수 한지사와 적색 황색 레이온사의 교차 사용을 통해 색채와 질감의 포인트를 주어, 기와지붕의 사선 형상이 잘 나타나도록 표현하였다. 실 굵기와 컬러의 변화를 주어 실의 대비를 극명하게 하고, 각도가 다양한 우능직과 좌능직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사용한 변형능직으로 능직의 각도와 두께를 다르게 하여 직물의 변화와 공간감을 부각시켰다.



<작품 9> 'Kiwa_2', 450×650mm / Hanji, Silk, Rayon

<표 14> 작품 9 'Kiwa_2'의 분석

이름	Kiwa_2	<p>색상</p> 
크기	450×650mm	
재료	한지사(30수/2합사) 한지사(2mm/5합사) 한지사(7mm/단사) 레이온사(120D/12합사) 레이온사(120D/2합사)	
바디, 중광	20번 바디, 8중광	
기법	능직, 변형능직, 변형평직	
제작연도	2019	
아이디어 프로세스		
		
직물조직		
 <p style="text-align: center;"> 능직 변형능직 변형평직 </p>		

기와의 골 마디마디는 현실의 수많은 관계들처럼 맞대고 얽혀 있다. 위아래의 지붕 선은 같은 듯 다른 기울기로 겹치며 어울린다. 차곡차곡 쌓아올린 돌담과, 높이에 따라 기울기와 크기가 다른 여러 층의 지붕이 서로의 간격을 달리하여 경쾌한 변화를 만들어내며 조화를 이루고 있다.

안정감 있게 지붕을 받쳐주는 돌담을 표현하기 위한 변형평직인 리브조직과 기와지붕의 사선을 표현하기 위한 변형능직으로 구성되며, 능직의 방향, 각도, 실의 변화와 반복을 통해 한옥의 돌담과 기와지붕이 가지고 있는 각자 다른 율동미를 표현하고 있다. 위사 페이스(Weft-Faced)의 조직으로 돌담의 기둥형 조직이나 기와의 사선형 조직이 부각되도록 하였다.

자연에서 가져온 돌을 인위적으로 가공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사용하던 선조들의 포용성과 소박성을 표현하기 위해 직물조직에서 자연스러운 돌담의 패턴이 나타나도록 연회색부터 진청색까지 그라데이션 되어있는 7mm 한지사를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패턴을 형성하고 있으며, 기와 부분은 진청색의 2mm, 7mm 한지사를 사용하였다. 기와의 골을 포인트로 나타내기 위해 백색 30수 한지사와 적색 레이온사를 함께 사용하였다. 한지사로 돌담의 거친 질감을 표현하고, 레이온사를 통해 색채와 질감의 포인트를 주어, 기와의 사선과 기와골의 형상이 잘 나타나도록 표현하였다. 실 굵기와 컬러의 변화를 주고 그라데이션사를 통해 실의 대비를 극명하게 하여, 변형된 리브조직으로 돌담의 규칙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각도가 다양한 우능직과 좌능직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사용한 변형능직으로 능직의 각도와 두께를 다르게 하여 직물의 변화와 율동감을 부각시켰다.

IV. 결론 및 제언

전 세계의 문화 콘텐츠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한국적 전통문화는 시대의 흐름을 타지 못하고, 옛날 전통쯤으로 여겨지곤 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본 연구자는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중 ‘한옥’의 조형적 특성을 재해석한 작품 연구를 통해 우리의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한국인들의 생활문화와 한옥의 형성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 한옥의 조형적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한옥에서 나타나는 조형적 특성을 공간의 연속성, 형태의 포용성, 색채와 질감의 소박성의 3요소로 분류하여 순환과 조화라는 한옥의 상징성을 도출하여, 이를 심상적 바탕으로 작품제작 아이디어를 드로잉하였다. 평면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식물 작품의 시각적 기능을 최대로 활용하여, 한옥에 거주하지 않는 현대식 생활에서도 한옥의 고즈넉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한옥의 조형적 특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식물조직 설계를 통해 식물 작품을 제작하였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인 한옥의 조형적 특성을 공간의 연속성, 형태의 포용성, 색채와 질감의 소박성의 3요소로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순환과 조화라는 한옥의 상징성을 도출하였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모티브를 추출하여 현대적인 식물 작품으로 시각화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드로잉하고, 이에 따른 식물조직을 설계하였다. 설계한 식물조직을 바탕으로, 평직, 능직 등의 기본 조직과 한옥의 조형적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변형 식물조직을 개발하여 직물을 제작하여 우리 전통문화의 현대적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직물 개발에 있어 전통 소재인 한지사, 실크사와 현대소재인 레이온

사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표현할 뿐 아니라 융합 소재를 모색하여 인테리어 직물로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전 세계의 문화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현시대에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옥이라는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이 주제를 시각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향성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조선시대의 주거건축만으로 한정하여 궁궐이나 사찰 건축에 대한 연구는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점과, 직물 디자인이라는 직조 기법으로 인해 수작업의 특성상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장소의 제약이 크다는, 상품화의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추후에 이 연구를 바탕으로 보완하여 궁궐 건축이나 사찰 건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물의 샘플 작업을 통한 자카드 산업 직물이나 프린팅 디자인 등의 기법적인 변화를 주어 대량생산의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문화상품으로 개발하는 등 긍정적인 발전이 일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작품을 인테리어 직물에 적용하여 현대 건축물의 실내공간과의 조화를 보여줌으로써,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현대적 발전 가능성을 세계 속에 알리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작품 표현의 방법을 직조뿐 아니라 프린트, 염색, 레이저 커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고, 미술 외의 음악, 체육 등의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도 전통문화의 현대적 발전에 관심을 갖기를 희망한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김왕직, 「알기 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 동녘, 2007
- 박명덕, 「한옥의 재발견」, 주택문화사, 2002
- 서윤영, 「우리가 살아온 집, 우리가 살아갈 집 : 서윤영의 우리건축 이야기」, 역사비평사, 2007
- 윤장섭, 「한국건축사」, 동명사, 1975
- 이상현, 「이야기를 따라가는 한옥여행 : 닮은 듯 다른 한옥에서 발견하는 즐거움」, 시공아트, 2012
- 임석재, 「나는 한옥에서 풍경놀이를 즐긴다 : 창으로 만들어내는 한옥의 미」, 한길사, 2009
- 임석재, 「지혜롭고 행복한 집 한옥 :한옥의 과학과 미학」, 인물과사상사, 2013
- 임석재, 「한국의 꽃살·기둥·누각」,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5
- 임석재, 「한국의 돌·담·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5
- 임석재, 「한국의 전통 공간」,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5
- 임석재, 「한국의 지붕, 선」,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5
- 임석재, 「한국의 창, 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5
- 정민자, 「아름지기의 한옥 짓는 이야기」, 중앙M&B, 2003
- 주남철, 「한국의 문과 창호」, 대원사, 2001
- 최성자, 「한국의 미 : 선 색 형」, 지식산업사, 1993
- 한국공간연구회, 「한옥의 공간문화」, 교문사, 2004
- 허균, 「한국 전통 건축장식의 비밀 : 장구한 역사의 숨결과 아름답고 환상장구한 역사의 숨결과 아름답고 환상적인 전설의 세계」, 대원사, 2013

2. 학위논문

- 김군선, 「한국의 전통 자연관과 현대 목가구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김여경, 「한옥의 조형미를 활용한 패션디자인 개발 : 벽과 창호를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문수정, 「전통복식의 조형미를 응용한 생활예복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박중원, 「도제합(陶製盒)의 조형연구 : 한옥(韓屋)의 조형성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배은석, 「글로벌 문화 시대 한식 세계화의 의미 성찰」, 인문콘텐츠학회, 2010
- 백승호, 「한옥지붕조형을 통한 작품제작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서한울, 「한옥의 친자연성을 중심으로 인간에게 이로운 요소를 적용한 공동주택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신경화,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작품주택에 나타난 전통성의 현대적 구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신혜영, 「관계와 소통의 시각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이교영, 「네거티브 공간을 활용한 패션 디자인 개발 : 한옥 이미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이승은, 「한식문화(韓食文化)구성요소의 색채분석을 통한 오브제적 표현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임은미, 「조각보를 응용한 조명디자인 연구 : 한옥의 선을 모티브한 작품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장임정, 「한옥을 상징하는 전통의장의 친자연적 요소에 관한 연구 : 재료와 구조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정현재, 「한옥양식의 현대적 공간접근 계획에 관한 연구 : 아파트 평형별 단위세대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테크노 디자인 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지혜진, 「한옥형상의 도자조형 연구」, 경기대학교 미술·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최수원, 「한옥의 조형 이미지를 재구성한 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한경희, 「한지 지승기법을 이용한 문화상품 개발 연구」, 조선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3. 학술논문

- 고홍규, 「“소통”의 개념으로 본 백남준의 작품 세계와 미술교육에의 적용」,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 2014
- 김남은 외 7명, 「한문화 인식 증진을 위한 기술·가정 의생활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및 적용 : 전통 의생활 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국과정과교육학회지, 2011
- 김영훈·박형민, 「경주시 공공건축물의 한옥 요소 적용 실태 분석」,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2018
- 김미갑·양숙희, 「현대 복식에서 표현된 한국적 조형 특성 연구 : 한국 회화의 운필, 여백의 개념을 중심으로」, 복식문화학회, 2007
- 윤지혜·오연옥, 「한옥의 이미지를 응용한 의상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009
- 전봉희, 「한옥의 브랜드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적 연구」, 서울대학교 국

학연구 제8집, 2006

4. 보고서

이정교, 「2014 한국적 생활문화공간 확산연구」, 한국 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2015

전봉희, 이강민, 「한옥정책브리프02 : 한옥의 정의와 의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1

5. 전시도록

함혜리, 「한국공예의 법고창신 2015」, 한국 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2015

6. 웹 사이트

<https://auri.re.kr> (접속일: 2019.04.30.)

<http://www.culturecontent.com> (접속일: 2019.05.16.)

<http://folkency.nfm.go.kr> (접속일: 2019.05.10.)

<http://www.hanokdb.kr> (접속일: 2019.05.12.)

<http://www.han-style.com/main/kculture> (접속일: 2019.04.26.)

<http://www.khousing.or.kr> (접속일: 2019.05.12.)

<http://www.law.go.kr> (접속일: 2019.05.16.)

<http://www.leeum.org> (접속일: 2019.05.12.)

<http://www.prism.go.kr> (접속일: 2019.04.21.)

<http://www.ucchinchang.org> (접속일: 2019.05.12.)

<https://blog.naver.com/belrose72> (접속일: 2019.05.12.)

<https://handweaving.net> (접속일: 2019.02.20.)

<https://hanok.seoul.go.kr> (접속일: 2019.05.12.)

<https://opendict.korean.go.kr> (접속일: 2019.05.12.)

<https://stdict.korean.go.kr> (접속일: 2019.05.12.)

<https://www.mmca.go.kr> (접속일: 2019.05.14.)

ABSTRACT

A Study on the Weaving Design Using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Hanok

Sooyoung, Choi
Department of Crafts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Modern society is globalized by internet development and worldwide trend is changing and shared in real time. However, in multicultural society that not only diverse information among countries but also contents of overseas culture are massively induced, the contents of our traditional culture are not combined to the trend changing in real time and considered as just 'ancient culture'.

To show our cultural identity and creativity in multicultural society, it's necessary to pursue diverse development of traditional culture suitable for the value of modern people based on the general understanding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not just force people to success and preserve our own traditional culture as it is. Therefore,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to establish identity

and creativity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and announce development possibility of our culture through the study on works reinterpreting formative characteristics and symbols modernly of 'Hanok', traditional culture related to Korean natural environment and lifestyle closely.

For the progress of research, documents and images of Hanok were collected through investigation of Korean living environment, Hanok formation, etc. based on the data investigation of the subject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 and general subject and concept of work design were confirmed.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Hanok were classified by 3 things such as spatial continuity, formative embracement, simplicity of color and texture and symbols of Hanok such as circulation and harmony were drawn. Based on the image come from formative characteristics and symbols of Hanok, the motif was drawn from the collected data, weaving pattern reinterpreting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Hanok modernly from the drawn motif was planned, and texture was manufactured for it.

This researcher intended to establish identity and creativity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through the study on texture works reinterpreting formative characteristics and symbols of Hanok modernly and furthermore, announce the possibilities of modern development of our culture in the world.